

# 농가설문조사를 통한 오미자 과원조성비 추정

최돈우\*, 김동춘\*, 이항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e-mail:gogemaroo@korea.kr

## Estimation of Orchard Making Costs using Farm Survey in *Schizandra chinensis*

Don-Woo Choi\*, Dong-Choon Kim\*, Hang-Ah Lee\*

\*Gyongsa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 요약

본 연구는 농가조사 오차를 줄여 소득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면접조사를 통해 오미자의 과원조성비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미자의 수량은 2년차부터 발생하여 3년차에 가장 많았으며 이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다. 둘째, 오미자의 손익분기점은 3년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오미자의 10a당 연간 과원조성비는 251,496원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오미자는 덩굴성 목본작물로서 해발 500~700m의 준고랭지에서 잔자갈 위에 부엽토가 쌓여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서 자생한다(농촌진흥청 2018). 오미자는 주로 생과를 이용하며, 즙액추출물의 수요 증가로 전국적으로 2,232ha(2018년)가 재배되고 있다(통계청, 2019).

오미자도 일반 과수작물과 같이 생산을 위해서는 과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오미자는 시설유형, 과원갱신기간 등이 다양하여 과원조성비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소득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조사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미자의 과원조성비를 추정하고자 한다.

### 2. 조사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미자 재배면적이 100ha이상 되는 문경, 장수, 거창, 단양, 함양 등 10개 시군을 선정 후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미리 작성된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농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유효표본 100호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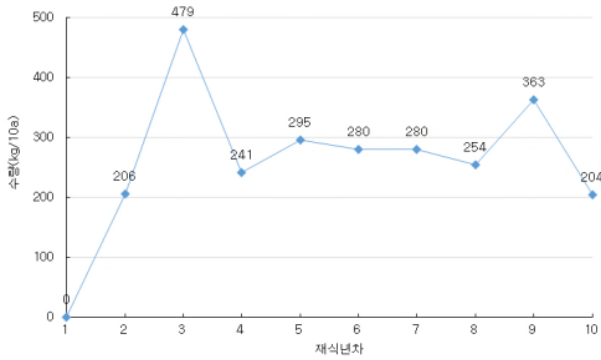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방법론(2019)의 과원조성비 계상방법을 참조하였다.

농촌진흥청(2019)에서 규정한 과원조성비란 “과수원을 조성하여 성목수령까지 투입되는 제 비용에서 수확,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공제한 부분을 과수원 조성비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목수령은 당해 연도에 과일을 수확 판매하여 얻은 총수입이 당해 연도 투입비용을 보상하고 순수익이 발생하는 수령(손익분기점)을 의미하여, 성목수령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조성기간이라 한다. 조성비는 조성기간 중 투입된 묘목,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노력비 등과 울타리, 관·배수시설 등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과일을 수확·판매하여 얻은 총수입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차액을 조사과수의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과수조성비를 계상한다.

### 3. 분석결과

#### 3.1 연차별 수량

오미자의 재식연차별 수량은 2년차부터 발생하여 3년차에 479kg/10a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부터 3년차 수량보다 감소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보였다. 3년차 이후 재식연차 간 수량의 증감은 농가마다 지역마다 식별 갱신 주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오미자의 재식연차별 수량

### 3.2 연차별 총수입과 총비용

오미자 총수입은 2년차부터 발생하였는데 2년차 1,937천원, 3년차 4,505천원, 4년차 2,266천원, 5년차 2,774천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1년차 묘목구입, 지주시설, 관수시설 설치 등으로 4,581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차 2,352천원, 3년차 3,281천원, 4년차 2,546천원, 5년차 2,681천원이었다.

따라서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을 보면 오미자의 손익분기점은 3년차임을 알 수 있다.

[표 1] 오미자 연차별 총수입과 총비용  
(단위: 년1기작, 천원/10a)

재식연차	총수입(A)	총비용(B)	차액(A-B)
1	0	4,581	-4,581
2	1,937	2,352	-415
3	4,505	3,281	1,223
4	2,266	2,546	-279
5	2,774	2,681	93

### 3.3 연간 과원조성비

오미자 과원의 10a당 과원조성비는 3,772,437원이고 농촌진흥청(2019)에 따르면 오미자의 내용연수가 15년이므로 연간 과원조성비는 251,496원/10a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오미자 과원조성비  
(단위: 년1기작, 천원/10a)

과원조성비 (원/10a)	내용연수 (년)	연간 과원조성비 (원/10a)
3,772,437	15	251,496

## 4. 결론

본 연구는 농가조사오차를 줄여 소득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조사방법을 통해 오미자의 과원조성비를

추정하였다. 표본추출은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 장수, 거창 등을 중심으로 100호를 조사하였으며, 과원조성비 분석방법은 농산물소득조사방법론을 참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미자의 수량은 2년차부터 발생하여 3년차에 가장 많았으며, 3년차 이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식별 갱신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오미자의 총수입은 2년차부터 발생하였고, 총비용은 묘목구입, 지주시설 설치 등으로 1년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차별 차액을 분석한 결과 손익분기점은 3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미자의 10a당 연간 과원조성비는 251,496원으로 분석되었다.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협동과제번호: PJ013916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참고문헌

- [1]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조사 방법, 2019.
- [2] 농촌진흥청, 오미자 - 농업기술길잡이197, 2018.
-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